

2013년도 10월 5일 시행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한국사(D책형)

해설 - 전한길 교수

문 1. 후왕(侯王), 왜왕(倭王) 등의 명문(銘文)을 통해서 백제와 왜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

- ① 칠지도
- ② 양직공도
- ③ 사택지적비
- ④ 무령왕릉 지석

1. 【정답】 ①

백제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하사해준 유물로서 백제와 왜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칠지도이다.

문 2.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찬과 일길찬은 경(卿)의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 ② 육두품은 득난(得難)이라고도 하였는데, 진골 다음 가는 신분이었다.
- ③ 복색의 기준은 신분에 따라 자색 - 단색 - 비색 - 녹색의 순서로 정하였다.
- ④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2. 【정답】 ③

신라 관리의 공복은 신분이 아닌 관등에 따라서 자색-비색-청색-황색의 공복을 입었으며 고려 광종 때 정비된 공복은 관등에 따라서 자색-단색-비색-녹색을 입었다.

문 3. 조선 초기 정치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였다.
- ② 서울에 경재소를 두어 지방 유력자를 근무하게 하여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 ③ 정책 회의에는 국왕이 매일 의정부와 삼사의 고급 관원들을 만나 정책 건의를 듣는 차대(次對)가 있었다.
- ④ 군현의 수령 아래에 면장, 이정, 통주 등을 두어 수령을 보좌하고 인구 파악과 부역

정발을 담당하게 하였다.

3. 【정답】 ③

조선 초기의 정치제도에서 국왕과 의정부와 삼사의 고급 관원들이 만나 정책 건의를 듣는 ‘차대’는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1개월에 3회 열렸다. 그 외 매일 아침 국왕과 신하가 모여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상참이다. ‘차대’의 개념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선택지 내용이 쉬웠으므로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 4.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의 왕대별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 ② 사초와 각 관청의 문서들을 종합하여 실록청에서 시정기(時政記)를 만들었다.
- ③ 실록 편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왕이 죽은 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관례였다.
- ④ 국왕과 신하가 정사를 논의한 발언과 행동을 사관(史官)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사초(史草)라고 불렀다.

4. 【정답】 ②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와 관청의 업무일지인 시정기는 모두 춘추관 소속의 사관이 기록하였다. 실록청은 국왕이 죽은 후에 실록을 작성하기 위한 임시관청이다.

문 5. ㉠ ~ ㉢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은(는)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 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 온 지 2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 (중략) ... ( ㉡ )은(는)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3포 왜란이나 임진왜란 때의 숙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공격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 (중략) ... ( ㉢ )은(는)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 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 (중략) ... ( ㉣ )은(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말만 믿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체통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 이를 빌미로 저들이 군사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이만손 외 만인소, 『일성록』, 1881 —

— <보 기> —

ㄱ. 보빙사는 ㉠에서 근대 산업과 문물을 시찰하였다.

- ㄴ. 조사 시찰단은 ㉠에서 근대 산업 시설과 공장을 둘러보았다.
- ㄷ. 영선사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 일행은 ㉡에서 무기 제조법과 근대적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
- ㄹ. 영국은 ㉢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불법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5. 【정답】 ③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에서 가리키는 ‘우리가 신하로서 섬겨온 나라’는 청나라이고,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는 일본, 우리가 모르던 나라는 미국,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보빙사는 미국, 조사 시찰단은 일본, 영선사는 청,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문 6. <보기>의 ㉠ ~ ㉣ 중 다음의 장정(章程)이 체결된 시기로 적절한 것은?

이 장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조약국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균점(均霑)의 예와는 다르다.

| — <보 기> — |   |      |   |      |   |      |   |      |
|-----------|---|------|---|------|---|------|---|------|
| 개항        | → | 임오군란 | → | 갑신정변 | → | 청일전쟁 | → | 을미사변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6.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임오군란 후 청과 맺은 장정이다.

문 7.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도록 한다.  
②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한다.  
③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를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보고 익히도록 한다.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7. 【정답】 ④

토지평균 분작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내시부를 없애는 것은 갑신정변의 ‘개혁장강’, 나라 안의

문 8.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고려 전시과에서 외역전은 왕실이 아니라 지방 향리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사패는 국왕이 공신에게 내려준 토지와 노비를 가리킨다.

문 9. 다음은 발해사의 전개 과정이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②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④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발해왕의 순서를 묻는 문제로 해군을 보내서 당나라를 공격한 것은 무왕, 왕의 계보가 대조영의 직계에서 그의 동생 대야발의 직계로 바뀐 것은 선왕,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수도를 상경과 동경으로 천도한 것은 문왕이다. 선왕의 업적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2대 무왕과 3대 문왕의 업적만 알면 순서 나열은 쉽

게 할 수가 있으므로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문 10. 다음은 시기별 남북한 관련 주요 정치 사안이다.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970년대 :  ㉠

1980년대 :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1990년대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2000년대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 <보 기> ————

ㄱ. 남북 정상 회담 개최

ㄴ.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ㄷ.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ㄹ.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안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0. 【정답】 ③

1970년대에 있었던 남북한의 대화는 71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과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2000년과 2007년으로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안은 89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

문 11.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귀신을 믿어서 나라의 읍들이 각기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주관케 하였으니 그 이름을 천군이라 하였다. 나라마다 각각 소도라고 부르는 별읍이 있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

(나)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 집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하였다.

① (가) -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② (가) -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제천행사를 치르고 왕과 신하가 국동대혈에 모여 함

께 제사를 지냈다.

- ③ (나) -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④ (나) -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취수혼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11. 【정답】 ②

제시문의 (가)는 삼한, (나)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10월에 동맹과 국동대혈의 제사는 고구려의 풍습이다.

문 12. 백제시대의 문화재로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사택지적비, 임신서기석
- ② 미륵사지 석탑, 단양 적성비
- ③ 정림사지 5층 석탑, 서산 마애삼존불
- ④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법주사 쌍사자 석등

12. 【정답】 ③

백제 문화재는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서산 마애삼존불이다. 임신서기석과 단양 적성비는 신라,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은 고구려,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의 문화재이다.

문 13.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때의 일로 옳은 것은?

-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하하였다.
-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① 인사를 관장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수행하였다.
- ② 기철 등의 부원세력을 제거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무력으로 복속하였다.
- ③ 정치도감을 두어 부원세력을 척결하고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가 중대사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합좌 기관으로 만들었다.

13. 【정답】 ④

왕에 대한 칭호가 '중'에서 '왕'으로 격하되고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일본 원정을 단행한 것은 충렬왕 때의 일이다. 사림원 설치한 충선왕, 쌍성총관부 공격은 공민왕, 정치도감을 설치한 것은 충목왕 때이다.

문 14. 고려 후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각국사 의천은 현화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추진한 신돈은 9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 ③ 교종 세력은 친원 세력과 손을 잡고 수선사를 개조하여 세력 신장에 힘썼다.

- ④ 태고 보우는 원으로부터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시킴으로써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올랐다.

14. 【정답】 ④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한 곳은 현화사가 아니라 국청사이고, 공민왕 때 9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한 것은 신돈이 아니라 교단 통합노력을 전개하였던 보우이고, 무신 집권기에 지눌스님은 수선사 결사운동을 통한 불교 개혁을 전개하고 수선사에서 선종 중심의 조계종을 창시하였지만 원 간섭기에 가서는 집권한 권문세족과 불교가 결탁하면서 불교가 타락하여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다. 공민왕 때 보우는 교단 정비 노력(9산 선문의 통합 주장)을 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원으로부터 임제종을 수입하여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올랐다.

문 15.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6·10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 ③ 여성 단체인 근우회의 결성에 자극을 주었다.
- ④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15.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1927년에 창립된 신간회의 강령이다. 6.10 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의 인산날에 일어났다.

문 16. 통일신라시대 농민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이나 부곡에서 생활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② 연수유전답이나 관모전답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 ③ 지방의 농민들은 보통 촌(村)이라고 하는 말단 행정 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 ④ 쌀, 보리 등의 곡류작물 외에도 모시, 목화 등의 의류작물을 재배하였다.

16. 【정답】 ④

목화는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들여왔으므로 통일신라의 농민 생활상과는 거리가 멀다.

문 17.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의 민전은 과전법의 대상지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 ②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 ③ 관료가 사망한 후에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전시과의 원칙이었다.
- ④ 과전법의 토지 분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었다.

17. 【정답】 ①

고려 전시과와 달리 조선 과전법은 전국 토지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 토지를 대상으로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다.

문 18. 19세기 농민들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조 부정 논리를 담고 있는 『정감록』과 미륵신앙이 농민들 사이에 퍼졌다.
- ②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홍경래난’에서는 신흥 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가 대거 가담하였다.
- ③ 농민들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확산되어 정부와 탐관오리를 비방하는 궤서(掛書)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 ④ 지주·토호의 압박과 삼정의 수탈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직의 일환으로 농민층에서는 향약이 성행하였다.

18. 【정답】 ④

19세기 삼정문란에 대한 농민들의 대처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벽서, 궤서 등의 저항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란의 형태로 일어났다. 향약은 재지 사족들이 농민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다.

문 19.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울릉도 시찰위원에 임명하여 현지에 파견하였다.
- ②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 ③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을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를 관할 구역 안에 포함시켰다.
- ④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 어민의 고기 잡이에 항의하였다.

19. 【정답】 ①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범윤을 파견한 것은 울릉도 시찰위원이 아니라 간도시찰원(관리사)이다.

문 20.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고, 일본군은 관아와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 ㄴ. 미국의 군함이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자 어



재연이 이끄는 부대는 격렬하게 항전하였다.

- ㄷ.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자 평양 군민들이 이를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 ㄹ.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흥선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였다.

- ① ㄱ → ㄷ → ㄹ → ㄴ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ㄷ → ㄹ → ㄴ → ㄱ
- ④ ㄹ → ㄴ → ㄱ → ㄷ

20. 【정답】 ③

연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로 운요호 사건은 1875년, 신미양요는 1871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다.